

从知识空间的创新与跨界的视角来看华文教育 ：以在线教育为中心

金珠雅（国民大学）

中文摘要

新冠疫情引起的社会各界变化中，教育界经历的变化将会对今后社会发展的方向产生影响，是我们值得关注的话题。众所周知，网络教育的必要性并对此的研究从2000年初开始。而新冠疫情在全世界范围内半强制性地普及了之前零星运营的在线教育。这预示着在线教育不局限于特定地区，而是国际教育模式的变革。即，在新冠疫情之前，以信息通信技术发达的部分地区为中心，在线教育的内容和技术取得了相当大的发展，但由于各国的基础设施建设情况不同以及有限的需求，未能形成系统的供应网。如今通过基础设施的普及与市场需求的增加，对在线教育的可能性和实效性的反馈比较了积极。

现在教育界认为，后新冠疫情时代的“在线教育”不再是选择，而是必须的。但是，随着新冠疫情封锁政策的放宽，国内教育正在迅速恢复为现有的、面对面教育为中心的线下教育。人们虽然已充分认识到在线教育的优点，但还不至于以在线教育代替线下教育。但是，在仍然面临时空制约这一难题的国际教育领域，因新冠疫情意外经历的线上教育正在成为新的对策。当然，在线教育不能完全代替现有的线下教育，但线上线下融合教育或以线上为主轴的教育方式备受关注。

尤其是，在本文研究的中国语言普及政策中，预计今后网络教育对中国和海外侨胞社会的交流和网络构建体系中会产生相当大的影响。中国早已实行了多种政策来推广华语和中华文化，其中有针对海外华侨和华人的在线教育。而在线教育的普及不仅需要内容开发，还需要基础设施，因此在海外未能达成普及阶段。另

外,即使中国扩充了相关基础设施,但由于海外地区的网络基础设施和硬件等不具备,未能取得实效性的事例也很多。不过,此次新冠疫情爆发,使得世界各国不得不引进在线教育,扩大了基础设施的建设,从而达到了华语在线教育的普及效果。然而,在具备教育基础设施的本国公共教育系统中,全面实施在线教育并不容易。更何况,在海外非制度圈内的民族教育系统经常处于更加恶劣的环境中。因此,预计今后随着海外华文教育的网络化,对祖国(中国)的依赖度将进一步深化。

탈경계와 지식공간 재창출의 시각에서 본 화문 교육

- 온라인교육을 중심으로 -

김주아(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과 화문교육
 - 1.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
 - 2. 화문교육의 정책적 의미
 - III. 코로나19이후 화문교육의 위기와 기회
 - 1. 화문교육계가 직면한 문제와 적응현황
 - 2. 탈경계와 지식공간의 재창출
 - IV. 결론
-

I. 서론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오늘’ 또는 ‘이 시대’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대미문의 시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百年未有之大变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시대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는 20세기는 2000년이 아니라 2020년에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마치 20세기가 1900년이 아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19년에 시작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¹⁾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세계 역사가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으로 전망했다(신윤경, 이진경, 2022: 568 재인용).

이처럼 ‘코로나19’는 단순한 바이러스명을 넘어 사회변혁을 가져온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묘사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의료재난이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인류의 삶(사회와 문화)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 주제만 보아도 코로나19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거의 없다. 최근 한국 학계의 분야별 인기 키워드를 살펴보면, 제시된 8개 학문분야의 10대 키워드 가운데 ‘코로나19’ 또는 ‘COVID-19’는 공학과 농수해양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의 10대 키워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²⁾ 특히,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분야의 경우 2000년에서 2021년 교육학 분야의 키워드 순위(1위~100위)에서 ‘코로나19’ 3위, ‘인공지능’ 12위, ‘원격수업’ 23위, ‘온라인 수업’ 30위, ‘COVID-19’ 34위, ‘인공지능 교육’ 62위, ‘플립러닝’ 67위, ‘비대면 수업’ 71위, ‘융합교육’ 89위순로 코로나19이후 교육분야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 1) [코로나19, 신인류시대 8부 김대식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됐다"(포스트코로나 - 서양과 동양) | 뇌과학자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20. 5. 11.

<https://www.youtube.com/watch?v=DwJc40JXQZg&t=597s>

2)

분야 순위	학문분야별 인기 키워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1	코로나19	코로나19	Korea	Deep learning	COVID-19	Antioxidant activity	코로나19	코로나19
2	한국어교육	COVID-19	Taxonomy	딥러닝	Magnetic resonance ima...	Antioxidant	COVID-19	COVID-19
3	정체성	대학생	COVID-19	Machine Learning	Depression	Rice	태권도	융합
4	번역	우울	Apoptosis	Microstructure	Stroke	Quality characteristic	Taekwondo	간호대학생
5	한국전쟁	연구동향	New record	Mechanical properties	Diabetes mellitus	Growth performance	가상현실	대학생
6	백제	인공지능	PM2.5	Finite element analysis	Obesity	Fermentation	노인	우울
7	중국	자아존중감	Inflammation	전산유체학	Prognosis	Oxidative stress	인공지능	인공지능
8	죽음	매개효과	Antioxidant activity	CNN	SARS-CoV-2	Soybean	음악교육	자기효능감
9	신라	자기효능감	Antioxidant	optimizaion	Child	Probiotics	빅데이터	자아존중감
10	타자	청소년	Phylogeny	인공지능	Ultrasonography	inflammation	자아존중감	노인

출처: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2022년 12월 1일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각계의 변화 중 교육계가 겪는 변화는 향후 사회발전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화두이다. 주지하다시피,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제기와 이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다.³⁾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교육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반강제적으로 보급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제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콘텐츠와 기술이 상당수준 발전해 있었지만, 각국의 인프라 구축 상황이 상이하고 제한적 수요로 인해 체계적인 공급망이 형성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기기보급이 확대되고 시장의 수요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교육은 코로나19 봉쇄정책이 완화되면서 기존의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온라인 교육(또는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난제에 봉착해 있던 국제교육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경험했던 오프라인 교육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또는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교육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본문에서 주로 알아보고자 하는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에서 향후 온라인 교육은 중국과 해외교포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구축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찍이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왔다. 그 중 해외 화교·화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의 보급은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3) 본문에서 사용된 온라인 교육은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기반 환경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학습 콘텐츠를 학습자의 인지구조로 재구조화하는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모든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닝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학습 체제로 기존의 네트워크 학습, 인터넷 기반 학습, 웹 기반 학습, 온라인 학습, 사이버 교육, 가상 학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박종선, 2009, 9쪽, 노채환, 2021: 5, 재인용).

한다는 측면에서 보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또한, 중국이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할지라도 막상 해외지역의 인터넷 인프라와 하드웨어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보급가능 지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자국내의 공교육 시스템안에서도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 형태의 온라인 교육은 쉽지 않다. 하물며, 해외에 기반을 둔 비제도권내 민족교육(모국어 및 문화 교육) 시스템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해외 화문교육의 온라인화에 따른 모국(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온라인 교육이지만, 이제는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육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교육의 경우 코로나19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온라인 교육이 대폭 축소되고, 기존의 대면교육으로 전환되어 온라인 교육은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 교육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교육이 보조교육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교육 특히 자국어 보급정책과 재외동포 정책에서 온라인 교육은 향후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 중에서도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화문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에 우리의 자국어 보급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과 화문교육

언어 정책(language policy)은 국가 공공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언어 정책은 여러 방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언어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 보급 정책은 정부가 나라의 국익을 위해 자국어 보급을 시행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언어 보급 정책의 범위에 따라 국내 언어 보급정책과 국외 언어 보급정책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언어 국외 보급 정책을 정의한다면 국외에 자국어를 보급하는 데 있어

서 국가 위상 강화와 문화 해외 진출의 차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국어의 국제적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손평, 2020: 1170).

1. 중국의 자국어 보급 정책

1980년대 초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중국어 교육’은 몇 차례의 개혁과정을 거쳤다. 먼저, 잘 알려진 ‘대외한어교학’단계에서 ‘한어국제교육’단계, 그리고 ‘국제중문교육’단계로 정책적 변화를 거쳤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어 교육의 1.0시대, 2.0시대, 3.0시대라고 지칭하며 이제 ‘중국어 교육 3.0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한다.⁴⁾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는 ‘중국어’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교육대상과 교육범위 및 교육목표에 따라 ‘한어(漢語)’, ‘중문(中文)’, ‘화어(華語)’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개편된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교육의 유형과 관련정책 및 담당부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중국어 교육의 유형과 개념

郭熙(2015)는 교육유형과 교육대상 및 교육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중국어(漢語) 교육의 분류와 범주를 설정하였다.

4)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HSK시험에도 반영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HSK 3.0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외한어교학’단계에서 HSK는 북경어언대의 주관하에 출제가 되었고, 시험 난이도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두 번째 단계인 ‘한어국제교육’은 소위 한판에서 주관하였으며, 국제사회에 중국어 보급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존의 시험보다 난도를 낮춤으로써 중국어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실제로 더 많은 학습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중국어 보급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어국제교육’시대 중국어 테스트는 구HSK에 비해 난도가 너무 낮아지면서,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단점과 중국어 학습자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HSK의 난이도와 급수를 조정함으로써 2022년 11월 26일 첫 시험이 실행되었다.

〈표1〉 僑敎, 華敎 그리고 語文敎育의 차이점

교육유형		국가통용언어교육(국어교육)			화문교육	중문교육
교육대상		한어(漢語)민족군	非한어 민족군	화교	화인	非중국계 외국인
성질, 환경, 목표						
모국어 교육		+	-	+	+	-
제1 언어		+	-	+/-	+/-	-
교육 목표	국가 정체성	+	+	+	-	-
	중화민족의 정체성	+	+	+	+	-
	중화문화의 정체성	+	+	+	+	-
기능적 목표	의사소통의 수단	+	+	+	+	+

출처: 郭熙(2015: 477) 참고.

먼저, 교육유형에 따라 ‘국어교육’과 ‘화문교육’, ‘중문교육’으로 분류하였는데, 국어교육은 다시 교육대상에 따라 중국어(漢語)를 모국어로 하는 민족과 소수민족 및 화교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화교는 중국 국적을 소지한 중국 공민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뜻한다. 때문에, 이들 세 부류에 대한 교육은 국가통용언어교육, 즉 ‘국어(國語)’교육에 속한다. 이 밖에도 화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화문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중문교육(Chinese as second language)’으로 명명하였다. 교육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교육목적 있어서도 화인을 대상으로 한 ‘화문교육’은 중화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화어(華語)가 이들의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주아, 2020: 145-146)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화문교육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문교육(華文敎育)은 주로 화예(華裔, 중국계 중국인)를 대상으로 한 ‘한(漢)민족의 언어 및 문화교육’이다. “화문교육은 수천만 명의 해외 화교화인, 특히 화예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중국 통용어와 중화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해외 화문교육을 ‘중화문화 해외진출 전략’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세계화 시대에 중국 문화의 소프트 파워 및 문화 발언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루트”⁵⁾로 여기고 있다. 중앙

통전부는 “화문교육의 독특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해외교포의 민족특성 및 조(적)국과의 정서적 연계를 유지하고 각국의 주류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화문교육의 표준화, 규범화, 전문화,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중국의 국가 통용어와 문자의 해외 보급을 촉진하고 중화문화의 해외 전파와 중외 인문교류를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언어문자사업 발전보고서, 2021: 73-74).

이처럼, 화문교육은 교육대상과 학습내용, 학습목표에 있어서 ‘한어’나 ‘중문’과 구분된다. 화문교육의 교육대상은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화인 또는 그 후예이며, 학습내용은 중국의 통용어(보통화와 한어병음, 간체자)와 중국의 문화를 위주로 하고 있다. 학습목표는 중국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중국문화를 계승, 발전함으로써 대외교류의 창구로 삼고자 한다. 즉, 화문교육은 중국정부의 언어와 문화교육을 통한 대외교류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이 그 개념과 범주 및 내용면에서 대폭 개편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화문교육’의 정책적 개념과 범위 및 그 의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중문교육’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국제중문교육(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그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물리적 하드파워(Hard Power)로는 한계를 느끼고 교육, 학문, 예술,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국제사회를 겨냥하고 있다.⁶⁾ “나라가 강하면 언어도 강해진다(國強、則語言強)”.⁷⁾ “국가의 하드파워가 언어의 국제적 전파를 좌우한다”.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지만, 국가의 하드파워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파워가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

5) 贾益民, 2013, 《世界华文教育年鉴》,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6) 문혜정. (2018).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소프트파워 전략.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 33-58.

7) 李宇明, “强国的语言与语言的强国”, 《光明日报》, 2004年7月28日.

8) 吴应辉, “国家硬实力是语言国际传播的决定性因素”, 《汉语国际传播研究》, 2021年第一期.

세계에 세워진 ‘공자학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어 보급정책이 ‘공자학원’을 통한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와 문화교육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교육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른 용어와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와 문화교육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과 확연히 구분된다. 즉, 중국어 자국어보급정책의 대상은 크게 ‘외국인’과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한 ‘중문교육’과 ‘화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자국어보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중문교육’은 ‘중국어(中文)’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계승하는 과정으로 교육 유형에 따라 중국 국내의 ‘대외한어교육(對外漢語教學)’과 해외의 ‘중문교육(中文教學)’ 그리고 해외의 ‘화문교육(華文教育)’을 포괄하고 있다.⁹⁾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중국 정부의 중문교육정책 개편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정부와 학계에서 ‘국제중문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19년 국제중문교육대회’이다. 본 대회에서 孫春蘭부총리의 기조연설과 당시 교육부 부장이었던 陳寶生, 부부장이었던 田學軍 등 교육계 관련 인사들이 기존의 ‘한어국제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국제중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吳應輝, 2022 : 103).¹⁰⁾ 이후 ‘국제중문교육’은 중국의 모든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중국의 자국어 보급사업이라는 정책적인 측면과 비모어자의 중국어 교육이라는 학술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앞서 말한 ‘2019 국제중문교육대회’는 중국의 자국어보급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孫春蘭 부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언어전파의 국제적 관례에 따라 언어사업을 중시하고, 현지(국제사회) 수요에 맞춰 중문 교육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더욱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표준화된 현대 국제중문교육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국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국가 비전과 전략이 담겨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언어정책인 ‘국제중문교육’에 대해 중국 학계에서는 ‘국가전략에 긴밀히 봉사하는 사업’이자 ‘전도유망한 학과’라고 소개하고 있다(吳應輝,

9) 郭熙, 林瑀欢, “明确“国际中文教育”的内涵和外延” 刘晗, 2022 : 52 再引用.

10) 李宇明, “强国的语言与语言的强国”, 《光明日报》, 2004年7月28日.) “国家硬实力是语言国际传播的决定性因素。(吴应辉, “国家硬实力是语言国际传播的决定性因素”, 《汉语国际传播研究》, 2021年第期。) (吴应辉, 2022 : 103)

2022: 110). 즉, 중국의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이다. 언어와 문화를 통한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전략은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이 추진해온 국가전략이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정책을 수정한 배경은 중국정부의 자국어보급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은 전 방위적인 중국 발전 억제 전략을 실시하여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Act of the United States)』에 따라 공자학원과 Chinese Language Flagship(中文領航項目) 중 ‘양자택일’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존에 공자학원을 운영하던 대학들은 미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중국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공자학원을 폐쇄함으로써 미국 공자학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吳應輝, 2022: 1066).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려 국지적 불안 상황이 빈발하고 국제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며 국제 화문교육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훼손하고 중국의 비상시기 언어 서비스 제공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劉晗, 2022: 53). 따라서 해외 화문교육을 국제 중문교육 연구에 통합하고 학술 논증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언어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은 개혁기의 실천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 포폴리즘의 대두로 인한 이론적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자국어보급정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게 된 점은 ‘국제중문교육’의 발전은 국제정치와 경제 및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는 물론 경제와 무역협력의 교류 정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상대국가의 중문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국제정치가 중문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에서 중문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국가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吳應輝, 2022: 1066).¹¹⁾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자국어보급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지면서,¹²⁾ 중국에서도 단순히 ‘언어’에 관한 연구와 ‘전파’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해외 언어정책에 반영하고

11) 동남아 각국의 사례(김주아,) 논문 참조

12) “한국에도 많은 공자학원, 서구에서 ‘퇴출 물질’인 이유”, 중앙일보, 2021-06-0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4833#home>

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롭게 개편된 ‘국제중문교육’은 ①국제정치와 경제, 문화가 중문교육에 미치는 영향, ②국제중문교육 학과의 이론 시스템 구축, ③국제중문교육 시스템, ④‘3가지 교육(교사, 교육 자원 및 교수법)’ 문제, ⑤프로젝트 관리, ⑥전형적인 사례, ⑦중국어 국제 커뮤니케이션, ⑧국제 중문교육에서의 기술 응용과 같은 다양한 등을 연구주제를 포괄하고 있다(吳應輝, 2022: 103). 기존의 정책과의 차별점은 바로 ‘국제정치와 경제, 문화가 중문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킨 것이다. 즉, 공공의 교정책임에도 기존의 연구가 주로 언어학을 필두로 한 ‘중국어 보급 방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면, 새로운 정책에서는 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보급 방법’으로 개편되었다.

(3) ‘국제중문교육’ 관련 부서 및 역할

수정된 정책 방향에 맞게 2020년에는 ‘국제중문교육’의 관리체제도 대폭 개편했다. 따라서, 기존의 ‘중문교육’ 업무를 총괄하던 ‘공자학원 본부’와 ‘국가한판’이라는 두 기관의 명칭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새롭게 간판을 내걸고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이하, 중문교육기금회)’와 ‘중외언어교육중심(이하, 언어교육센터)’이 있다.

2020년 6월 16일, 민정부(民政部)의 승인으로 ‘베이징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과 ‘푸단대학(復旦大學)’, ‘중국교육출판전매집단유한공사(中國教育出版傳媒集團有限公司)’가 참여하여 비영리 단체인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中國國際中文教育基金會)’를 설립하였다. 한국의 재단법인과 같은 성격의 본 기금회는 자선단체로 등록되었으며, 27개 고등교육기관과 기업 및 사회조직이 연합하여 설립되었다. 중문교육기금회의 설립 취지는 “전 세계의 중국어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인문교류를 증진하고,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중국이 제창하는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¹³⁾

중문교육기금회의 관련규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본 기금회의 기능은 ①전세계의

13) 中国国际中文教育基金会简介, <http://www.cief.org.cn/jj>, 2020년 10월 5일;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组编, 『中国语言文字事业发展报告 2021』, 商务印书馆, 2021: 71-73.

공자학원과 국제 중외교육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 ②공자학원의 브랜드 기준과 규범 제정 및 공자학원 설립 허가, ③공자학원의 운영과 수업에 대한 평가, ④기타 중문교육 기금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 국제중문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이다(吳應輝, 2022: 104). 설립취지와 업무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회의 주요 역할은 ‘공자학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2020년 7월 6일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중외언어교육중심(教育部中外語言交流合作中心)’이 설립되었다. 언어교육센터의 설립 취지는 ‘국제중문교육’을 발전시키고 중국과 외국의 언어 교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중문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중국어 교사와 교재, 학과개설 및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국제 중국어 교사 시험과 외국인 중국어 능력 시험과 관련된 일련의 시험을 조직한다. 또한, 관련 평가제도와 프로그램 및 장학금 등 국제중문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함으로써 중국의 대외 언어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¹⁴⁾

이 밖에도 ‘화문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로는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國華文教育基金會)’가 있다.¹⁵⁾ 본 기금회는 2004년 9월에 설립되었다.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와 마찬가지로 민정부에 등록된 기관이지만, 업무 특성상 국무원 교무판공실(國務院僑務辦公室)이 주관하고 있는 자금 공모형 기금회(public-raising foundation)이다.¹⁶⁾ 팬데믹 이후 해외 화교화인의 화문교육과 관련해서 ‘화문교육기금회’와 중국 전역의 ‘교련(僑聯)’¹⁷⁾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외언어정책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예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 화

14) 中外語言交流合作中心簡介, www.Chinese.cn/page/#/pcpage/publicinfodetail?id=140, 2021년 10월 7일.

15)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Foundation of China, 관련 사이트: <https://www.clef.org.cn/>

16) 화문교육기금회의 업무 주관부서는 국무원 교무판공실로 14개 부처와 1개 민주당파중앙과 2개 대학으로 구성된 이사단위는 중앙통전부, 중앙대외선전판공실(국무원신문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문화부, 국가방송영화총국, 국가신문출판총서, 국무원 교무판공실, 전국정협 홍콩·대만화교연합회,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중국지공당 중앙, 국가언어 문자공작위원회, 기남대학과 화교대학이다.

17)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 (All-China Federation of Returned Oversea Chinese), 관련 사이트 <http://www.chinaql.org/>

교화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을 분리해서 관리했다면, ‘국제중문교육’을 통해 이 두가지 유형의 교육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운영과정을 통해 드러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과 대외언어정책의 이미지회복 및 전략적 전환에 따른 조치로 예상된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해외 화교·화인사회가 ‘구이민과 신이민’, ‘화교와 화인’, ‘1, 2세대와 후속세대(3, 4세대 등)’로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교육대상을 기준으로 교육유형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화교·화인이지만 중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하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대외언어정책의 이미지제고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공자학원의 명칭을 수정하는 대신 그 관리체계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미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제중문교육을 통합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소위 전략적 전환은 중국정부의 소프트파워 전략에 대해 일련의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중국계 학습자보다는 중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중국계(화교·화인) 학습자에 대한 언어문화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화문교육의 정책적 의미

최근 중국에서 게재된 화문교육과 관련된 논문에서 중국정부가 화문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논문이 많다. 이때 주로 거론되는 용어로는 ‘일대일로’, ‘운명공동체’, ‘신시대’, ‘대통전’, ‘중국의 이미지’, ‘중국의 이야기를 전하자’, ‘민족의 부흥’, ‘중국몽’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는 중국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책방향으로 해외교민을 대상으로 한 민족교육분야에서 이러한 어휘들이 등장하는 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화문교육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관련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족적 유대감과 민족통일의 강조

2014년 6월 6일, 시진핑 주석은 제7차 세계화교화인사단 친목대회 대표들과 만난 자

리에서 “단결하고 통일된 중화민족은 국내외 중화자녀 공동의 뿌리이며, 넓고 심오한 중화문화는 국내외 중화자녀 공동의 혼”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외 중화자녀 공동의 꿈”이라고 말했다. 소위 ‘뿌리’, ‘혼’, ‘꿈’ 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동의 뿌리는 우리를 깊이 있게 하고, 공동의 혼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 새기게 만들고, 공동의 꿈은 우리가 한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반드시 중화민족 발전의 새로운 시대의 장을 함께 쓸 수 있다”(郭熙, 2020: 17)는 뜻으로 혈연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대통전(大統戰)’ 사업 구상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대통전’이 통일전선 사업의 이론적 지침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 2021년 1월 개정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조례’가 공포됐으며 통일전선 업무범위는 주로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당외 지식인 업무, 해외 통일전선 업무, 교민 업무 등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통일전선 사업을 중시하고 일련의 연설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신시대¹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인 통일전선 이론을 형성했다. 그 중 중국어 교육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며, 당과 국가의 ‘대통전’ 전략을 배경으로 중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신시대의 개혁개방 진입에 필요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교류활동에 필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卓高鴻, 2021: 109).

이처럼, 중국어 교육을 통해 국가전략사업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이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실추와 오명을 타계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전략 중에서도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화문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다. 화문교육은 해외에서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홍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중국 문화 전파방법이다. 또한, 해외 교포들이 중국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중국어 교육은 ‘뿌리 유지 프로젝트(留根工程)’로 알려져 있다(중국언어문자사업 발전보고서 2017: 117).

18)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시대는 중국의 새로운 역사 발전 방향이다.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신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new/158872/2017-12-21/cd_35354271.html, 中国日报网 2017-12-21.

(2)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국가전략과 연계

코로나19는 국제중문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개념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일대일로’ 건설이 확고히 추진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중문인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중국어 학습이 많은 국가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중문교육정책은 중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중화 문화를 담고, 중외 문명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과 ‘일대일로’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¹⁹⁾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어의 역할에 대해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지혜를 전하고, 중국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중국문화의 보급과 전파는 신시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蘭滇, 2021: 65)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郭熙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이념에 따라 앞으로 해외 중국어 교육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일대일로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길(李宇明, 2018)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 중문교육은 중국의 랭귀지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郭熙, 2020: 17).

(3)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지난 2021년 5월 31일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제30차 단체교육’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국제 전파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중국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包含麗, 2022: 47).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100년 투쟁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는 “홍보능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야기,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파하여 인류 문명과의 교류촉진을 통해 서로 배워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와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화문교육 전공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류 학과로서 해외 화문교육 인재 양성과 중국 문화의 해외 전파를 위한 중요한 전지역할을 담당하고 있다(袁媛, 2022: 1).

19) 吳應輝, 樑宇, 郭晶等, “全球中文教學資源現狀與展望”, 《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第5期, 2021.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듯 화교대학 賈益民교수는 해외 화문교육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국가전략에 봉사하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져야 하며,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해서 중국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고 했다(徐皎月, 劉丙麗, 胡建剛, 2021: 4). 그는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이후, 우리나라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어 중국과 화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문교육을 통해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어 중국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賈益民, 2021: 6). 즉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정부 입장에서 화문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화문교육의 기본 입장과 원칙을 견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화문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4가지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기여하는 것, 둘째, 화교화인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셋째, 거주국이 주류사회가 되는 것이 기여하는 것, 넷째, 세계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賈益民, 2021: 8). 이를 정리하면, 화문교육은 이를 사용하는 중국의 해외교민 뿐만 아니라 거주국사회와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제중문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 陸劍明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중문교육이 계속 번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견해—외국인에게 중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인에게 중국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세계 각국에 중국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화민족에게는 ‘타국 침략’이라는 ‘유전자’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중문교육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陸劍明等, 2020 : 435-436).

이를 종합하면, 앞서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의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정부는 화문교육을 포함한 국제중문교육을 통해 중국문화(中華文化)전파하고, 대외교류를 촉진하여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Ⅲ. 코로나19이후 화문교육의 위기와 기회

앞서 소개한 2019년 ‘국제중문교육대회’가 ‘국제중문교육’ 시스템 구축의 ‘신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한다. ‘국제중문교육’은 중국 국내의 한어교육(漢語教學)과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해외 중문교육(中文教學) 그리고 해외 화문교육(華文教學)를 포함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국제중문교육’시대가 열린 시점은 코로나19와 무관하다. 하지만, 교육체계도 국제중문교육이라는 신시대의 개막과 함께 코로나19가 불청객처럼 찾아왔다. 즉 국제중문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 해외 화문교육계가 직면한 문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발은 전 세계 경제와 문화 발전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상당수 국가에서 ‘비대면 수업’, 즉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코로나19이전에도 교육계에서 온라인 교육이 교육발전의 한 형태로 연구 및 실행되고 있었지만, 정규교육과정이 전면 비대면을 실시한 것은 전대미문의 상황이었다. IT기술이 상당히 발달하고 보급된 국가에서도 단계적인 적용이 아닌 전면적인 온라인교육은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해외의 화문교육계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물론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문학교가 처한 상황은 교육제도 체계와 학습목적에 따라 크게 다르다. 먼저, 화문교육이 거주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는 학력인정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화문을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학습하는 상황과는 구분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화문교육이 제도권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해외 화문학교는 화교사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해외의 화문교육은 제도권교육 체계에 편입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제도권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공자학원과 같이 외국어 교육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부족한 물자와 인원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주국 정부 입장에서 비제도권 교육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문교육계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화문학교의 온라인교육은 기술면에서

뒤쳐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화문학교를 지원해 오던 화교화인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학생들의 유실(본국으로 귀국), 학교운영자금의 부족, 온라인 수업에 맞는 교수법 및 교육설계 문제 등 화교학교는 전방위적 어려움에 직면했다(謝樹華, 包含麗, 2021: 53).

이처럼 거주국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화교학교가 처한 어려움은 전 세계 교육계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와 함께 해외 화문교육계가 직면한 특수한 문제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의 실시로 인해 화문학교가 겪었던 보편적인 문제들이다.

첫째, 온라인 교육에 대해 교사의 인식부족이다. 통계에 따르면, 화문학교의 76.47%가 비대면수업(온라인수업), 11.76%가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사에게 온라인 교육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32.35%가 조금 알고 있다고 답했고, 47.06%는 다소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약 80%의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교육에 임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강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자의 94.11%는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학습의 질적 보장의 어려움(82.35%), 정보화 인프라 구축의 미비(76.47%), 온라인 교재 등 교육 콘텐츠 부족(70.59%), 교사의 온라인 수업 기술 개발 필요(38.24) 등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화문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컴퓨터·인터넷 등 인프라 자원(76.47%)과 교사에게 대한 정보기술(IT) 교육기능훈련(70.59%), 전자교재·슬라이드웨어·동영상 등 교과과정과 교육자원(64.71%), 가정에서의 온라인교육 협업(64.71%)으로 조사됐다(蘭滇, 2021: 65-66).

이러한 문제들은 화문학교가 거주국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권내 교육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된 경우에도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교수자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해외에서 이뤄지는 민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화문교육이 겪는 특수한 문제들도 발견된다. 이는 대부분 화교학교의 구조적인 문제, 즉 모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첫째, 교사수급의 어려움이다. 특히, 중국에서 파견된 교원에 의존했던 화문학교는 코로나19의 발발로 중국 국적 교사들이 귀국 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사부족현상 겪었다. 또한, 비제도권에 있는 화교학교의 경우, 정식적인 교사훈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나 파트타임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²⁰⁾ 교사수급과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는 화문교육의 고질적인 난제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작용했다.

둘째, 재학생 수의 감소이다.²¹⁾ 이러한 문제는 거주국내의 제도권 교육에 편입된 화문학교가 아닌, 신화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화문학교에서 주로 발생했다. 즉,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대거 중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남아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학교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재정수지의 악화이다. 화교화인 사회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화문학교는 코로나19여파로 화교화인사회의 경제적 수익이 감소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던 화문학교의 경우 학생 유실은 바로 재정적자로 이어졌다.²²⁾

이처럼 교사와 학생, 재정으로 연결된 화문학교의 문제는 악순환을 이루었다. 교사의 부족은 학생감소로 이어졌고, 재정부족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대책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화문학교는 더욱더 중국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온라인교육의 필연성과 적응현황

첫째, 코로나 발생 후 ‘교육의 지속성(停課不停學)’에 대한 객관적 요구

20) 해외 화문학교 재직 교사 중 풀타임 교사는 34%에 불과하고 66%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包含麗, 2022 : 50, 참고.

21) 팬데믹 기간 약 17%의 교민가정이 귀국을 선택했으며, 이탈리아 프라토의 경우 30%의 중국 교민(가족)이 귀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謝樹華, 包含麗, 2021 : 56). 사립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필리핀의 화문학교(전국적으로 100여개)는 학비 등 비용감면(4~30%)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학생 등록수는 3~60% 하락했다(黃瑞銘, 2020 : 12).

22) 조사에 따르면 26%의 화문학교만 흑자를 유지했고, 44%의 학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었으며, 22%의 화문학교는 소폭 적자, 7%의 학교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다. 이탈리아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프라토시에서는 10개의 화문학교가 폐교되기도 했다. 包含麗, 2022 : 50, 참고.

코로나 기간 동안 과연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계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였다. 한편, 해외 화문교육의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먼저, 거주국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허용하지 않는 정부당국의 정책과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오프라인 대면수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화문교육기관의 자금난과 교원 부족 등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특히, 대면수업의 경우 중국에서 파견된 교원에 의존하고 있던 화교학교는 코로나19 이전 중국으로 잠시 귀국했던 교사들은 물론, 새로 파견된 교사들도 제때 출국이 어려워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현지 정부가 오프라인 수업을 허용해도 교원 부족으로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화문교육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자리잡은 온라인 화문교육은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현지사회 변화

코로나19 발생 초기 온라인 교육은 일부 유럽 국가의 화문학교 입장에서는 여전히 낯선 교육방식으로 모든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속도, 전자 장비 등 제반여건이 필수불가결한 만큼 팬데믹 초기에는 온라인 화문교육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상황이 발전함에 따라 해외 화문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어 중후반기에 이르자 화문학교는 학생들의 학습특성과 온라인상의 교육특성을 결합하여 수업 방식을 조정하고 교육 방법을 업데이트하여 커리큘럼을 개선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정보화기술 훈련을 강화하면서, 학생들도 점차 온라인 교육 모델에 적응했다. 결국, 화문학교의 온라인교육 재학생 수가 안정화 단계에 이르며 온라인 수업도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한편,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고 학교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창업할 의향이 있지만, 학교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장비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해외 화문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창업하기도 했다.

셋째, 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화문교육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통합은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지난 2001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글로벌 화인교육정보기술 회의에서는 새로운 교육 개념인 ‘중국어 과

정의 세계화'를 제안하고 공식적으로 화문교육 디지털 자원 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또한, 2002년 중국의 화문교육대학은 원격 쌍방향 학습을 위한 『한어』와 『중문』 두 세트의 교재를 출시하기도 했다.²³⁾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지난 2015년에는 해외 화문교육기업 '하토 중국어(哈兔中文)'가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하토 중국어'의 컨셉은 바로 '인터넷과 해외 화문교육의 결합'이었다.²⁴⁾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지금처럼 절실하지 않았으며, 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기술 수준의 한계로 보급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화문교육의 기술적 장벽이 약화되었고 온라인 화문교육의 효과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5G 상용화 속도는 온라인 화문교육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모바일 초고화질 비디오, AR/VR와 같은 대용량 트래픽 응용 프로그램이 온라인 화문교육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기술의 급속한 보급이라는 '의외의 수확'은 향후 국제중문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화문교육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

중국의 언어생활실태 보고서(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 2021: 131)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해외 2만 개 이상의 화문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화문학교의 수업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는데, 해외 화문학교가 직면한 도전과 어려움은 중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많은 시장 자원과 온라인 교사교육과정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외 온라인 교육의 '공급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화문교육 자원의 시장 재배치 및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화문학교는 학생 이탈, 교사 부족, 자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해외 화에 청소년들이 귀국하여 중국 문화를 배우고 애국심을 함양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는 길이 막혔다(包含麗, 2022: 47).

해외 화문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중국화문교육기금회'

23) 彭俊, 《華文教育研究》, 上海: 上海師範大學, 2004.

24) 朱敏, 郭鎮之, 華文教育 網絡傳播, 《教育傳媒研究》, 2017 (5) : 33-35.

의 ‘명사초청 강연(名師講堂)’ 화문교사 원격교육 프로젝트팀은 해외 화문학교와 화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총 41개국, 490건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화문교사의 63.9%는 코로나19 이전에 온라인 교육 경험이 없었고 22.3%의 화문교사는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했다고 응답했다. 즉, 약 90%의 화문교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경험치가 전무했다. 게다가 일부 해외 화교학교는 여전히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문교사 또한 파트타임이라서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화문교육의 지역적 범위가 해외라는 점에서 기존의 화문교육을 지원하던 중국정부의 정책도 위기를 맞았다. 국가별 봉쇄정책에 따라 인적, 물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교사파견이나 화예 청소년 본국 방문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되었다.

이에 언어학계를 비롯해 화문교육을 지원하는 각계 인사가 화문교육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 주로 온라인 국제중문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척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원격 온라인 교육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매력적이고 시대에 부합한 중국어 교재를 작성할 것인가? 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이 논의되었다(陸劍明等, 2020 : 435).

(4) 온라인 화문교육이 남긴 긍정적인 효과

팬데믹 이후 해외 화교교육계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긍정적인 역할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지식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 학습 가능 시간의 확대는 물론 유연한 교육 모드 및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²⁵⁾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외 화문교육 기관은 교육 모델을 혁신하고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화문교육이 시공간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해외 전파 및 중국 문화전승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온라인 화문교육에 대해 높이

25) 溫州舉辦德國華文教育機遇與挑戰線上研討會, chinaqw.com, 來源:中國僑網, 2022-03-30.

26) 第一屆歐洲華文教育研討會重要嘉賓發言記錄, 2021-06-03, 包含麗, 2022: 48頁 재인용.

평가하며, 향후 그 역할과 기능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화문교육의 보급이 확대되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과 화인사회의 공조와 협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온라인 교육기술 지원과 고품질 교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외 화교는 현지 문화와 학정을 이해하고 학생 자원을 조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해외화교 사회가 상호보완과 협력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은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원래 화문 학교가 없는 지역의 화예들도 온라인 화문교육을 통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해외 화문학교도 단일 지역의 중국 커뮤니티 학교에서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한 국제 중국어 학교로 변모했다. 즉, 외딴 지역에 거주해 화문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중국계 청소년(화예)에게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包含麗, 2022: 48). 또한, 해외 화문학교도 특정 지역 화인커뮤니티 스쿨에서 지역과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화인학교로 변신하였다. 특히 해외 화인학교의 온라인 문화 수업의 도입은 기존의 지역적 한계를 깨고 해외 중국어 학습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취학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包含麗, 2022: 49).

둘째,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내 화문교육 연구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이 언어교육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 관련 수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팬데믹 기간동안 대부분의 화문학교는 교실 수업과 캠퍼스 문화 행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온라인 화문교육과정은 해외 화문교사의 정보화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단조롭고 지루했던 언어 교육이 이제는 중국 문화관련 영상과, 사진 및 애니메이션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화문교육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화문교육모델이 구축될 수 있었다.²⁷⁾ 이 밖에도 중국내 온라인 교육 기관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이중 감소(雙減)’ 정책이 도입된 후 많은 온라인 사교

27) 海外華文教師線上教學忙“雲端”共堅守, <https://baijiahao.baidu.com/s?id=1676427939690754365&wfr=spider&for=pc>, 來源:中國新聞網, 2020-08-30

육기관이 해외시장에서 중국문화 전파 행렬에 참여하면서 중국문화의 전파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다.²⁸⁾

2. 탈경계와 지식공간의 재창출

화문교육의 근본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제한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공간을 넘어선 탈경계와 온라인(가상세계)이라는 지식공간의 재창출로 이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화문교육 생태 형태도 ‘유형의 학교’에서 ‘무형의 온라인 학교’로 전환되었다. 온라인 화문 교육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지만, 해외 화문교육 조직의 생태 발전은 점진적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개방적인 진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謝樹華, 包含麗, 2021: 59).

(1) 온라인 화문교육플랫폼과 교육방식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온라인 기반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의 성장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김규리, 2022: 1). 한편, 중국의 수많은 온라인 화문교육 플랫폼과 인공지능 중국어 학습 소프트웨어가 해외 화문교육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화문교육의 비전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해외 화문교육 생태계는 재편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째, 화문교육에 활용된 다양한 교육플랫폼

온라인 화문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육플랫폼으로는 VooV meeting(騰訊會議), Zoom, Google Classroom, DingTalk(釘釘), Yuketang(雨課堂), Chaoxing(超星), Welink 등이 있다. 이 밖에 WeChat(微信), TicTalk(抖 音), KuaiShou(快手), Twitter, Facebook, YouTube 등 다양한 소셜 도구가 중국어 교육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

28) 新東方在美開設中文課? 多家機構已佈局海外中文培訓, <https://baijiahao.baidu.com/s?id=1717393195659230274&wfr=spider&for=pc>, 來源: 新京報, 2021-11-25.

했다(吳應輝, 2022: 105). 이들 교육 플랫폼에 있어 해외 화문교사들은 미국에서 개발한 Zoom 소프트웨어를 더 선호하며 통계에 따르면 77.5%가 Zoom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27.4%로 이 가운데 DingTalk(釘釘)과 Classin, VooV(騰訊會議)의 사용율은 각각 14.6%, 7.4%, 5.5%, 기타 소프트웨어는 21.3%를 차지했다(중국어 생활실태 보고서, 2021: 132).

둘째, 웹사이트 커리큘럼과 온라인 교육시장

화문교육과 관련해 중국내에서 유명한 웹사이트로는 ‘중국어화문교육망’이 있다.²⁹⁾ 이 사이트는 교사연수와 가상교실, 애니중문, 화문교재 등 다양한 커리큘럼과 교육자료가 있다. 특히, 교사연수는 ‘중국어화문교육기금회’가 2006년 실시한 ‘인터넷+화문교육’ 모델을 이용한 화문교사 원격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98개국 2만개의 화문학교에 양질의 공익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커리큘럼은 특별 과정, 교수 시범 수업, 실시간 수업(다시 보기) 등이 있다.

중국의 화문교육 기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했으며, 하루 중국어, 탕핑 중국어, 옹공 중국어 등 원래 일부 온라인 시장을 점유한 중국어 교육 기관은 독립적인 교육 관리 플랫폼과 경험이 풍부한 온라인 교사 자원의 도움으로 많은 화에 학생을 상당수 흡수했다. 한편, 온라인 교육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중국어 학습 플랫폼(全球中文學習平臺)’, ‘중문연맹(中文聯盟)’, ‘팡디 스마트(龐帝智能)’, ‘사이쿠야(賽酷雅)’, ‘탕핑 한어(唐風漢語)’, ‘중문로(中文路)’, ‘워동 테크놀로지(沃動科技)’ 등³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디지털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吳應輝, 2022: 105).

셋째, 온라인 화교교육의 수업유형

이 밖에도 해외 화문온라인 수업의 유형은 크게 실시간수업, 녹화수업, 실시간과 녹화수업의 병행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중 실시간수업을 위주로 하고(81.2%), 녹화수업은 보조수단(13.1%)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화문교사들은 교사와 학

29) <http://www.hwjyw.com/>

30) 순서대로 각 웹사이트의 주소 ①<https://www.chinese-learning.cn/#/web>, ②<https://www.chineseplus.net/>, ③<https://reader.ipondy.com/>, ④<https://www.saqoia.com/>, ⑤<https://www.tangce.net/>, ⑥<https://www.chineserd.com/?about-us>, ⑦<https://www.movek.net/hlwly>

생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언어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간수업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실시간 수업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 렉(lag)에 걸려 지연되기도 하지만, 녹화 수업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실시간 수업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실시간수업과 녹화수업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수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부 화문학교는 하드웨어의 부족과 네트워크의 불안정문제와 더불어 컴퓨터 기술을 이해하는 교원의 부족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중국어 생활실태 보고서, 2021: 132).

또한 AI, VR 티칭 페이지는 온라인 과제에 접근하여 전통적인 단방향 교육에서 인지적 상호 작용 및 몰입형 체험 모델로 수업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난 사범대학 국제 중국어 문화 대학과 베이징 오레이(北京欧蕾)는 공동으로 ‘인터넷+교육’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실제 장면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국제 중문 VR 시나리오 교육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을 시작했다.

(2) 온라인 화문교육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

해외 화문 온라인 교육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의 화문학교와 관련 조직은 여러 차례 해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중국 화문교육 네트워크와 베이징 화문학원의 ‘교사양성 클라우드 교실’을 예로 들어 해외 화문 온라인 교육의 수요에 대해 어떠한 ‘공급’을 제공했는지 살펴보았다(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 2021: 135-136).

해외시장의 온라인 화문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민업무 관련기관(국무원 교무판공실, 중국교련, 화문교육기금회, 각국의 중문교육촉진회 등)은 중국의 온라인 교육기업과 해외 화문교육기관의 협력을 적극 주선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 교육기업의 인터넷 기술 우위와 해외 화교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거주국의 문화와 인프라 구축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해외 화문학교가 더 이상 인터넷 기술 부족문제로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문화체험과 교사연수사업을 지원했다. 물론 중국어에 대

한 콘텐츠도 다수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제중문교육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업이 많아지면서, 언어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물론, 화교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무료버전도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화문교육 지원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조국방문과 같은 문화체험과 현지교사의 중국연수와 교재개발 등 단순한 언어교육차원이 아니라 민족문화전수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중국의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물론 교련, 화문교육기금회 등 관련 기관은 교사연수와 가상수업, 교재 시범 수업, ‘가족의 정-중화, 당신을 위한 이야기’, 낭독 대회, ‘화문교육 춘완’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수업과 화문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謝樹華, 包含麗, 2021: 58).

앞서 소개한 것처럼 화문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로 ‘교련(僑聯, 中華全球歸國華僑聯合會)’과 ‘화문교육기금회(中國華文教育基金會)’가 지원하고 있다. 국내 각종 화교관련 기관도 잇달아 화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외 화문교육 시장을 겨냥하고 해외 화문학교에 다문화 교육 및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화문교육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화문학교가 없는 외딴 지역의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화문을 배울 수 있도록 화문교육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아울러,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의 우수한 교사들이 대거 온라인 화문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화문교사진의 인력풀이 더욱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도 제고되면서 해외 화교화인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첫째, 실시간 수업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봉쇄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해외 온라인 수요는 ‘긴급 사용 및 선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외 화문교사 및 해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중국화문기금회’는 온라인 화문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문화 가상교실’과 ‘애니 중국어교실’ 코너는 해외 화문학교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기금회는 중국내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따뜻한 5대륙: 경자 2월 ‘수업은 멈췄으나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停課不停學)’라는 실시간 수업을 개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화문학교에 온라인 수업과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국의 화문학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7월 6일까지 본 기금회와 그 협력사는 총 21주간의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였고, 39개국 200개 이상의 화문학교에서 약 3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譚子恆, 鄧曉雅, 2022: 53).³¹⁾ 베이징중문학원의 ‘화문교육 동심원·교사연수 클라우드 교실’은 해외 화문교사들을 위해 총4기의 실시간 연수과정을 개설했다. 그중 1기는 해외 화문교육 관리자들을 위한 특별 연수과정으로, 100명 이상의 교사와 약 1,000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둘째, 문화체험을 중심으로 한 무료 교육과정

각급 교민 관련 조직은 해외 화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전국 각지의 교련은 ‘뿌리 찾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고국방문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활동은 바로 해외 화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봄(여름/가을/겨울) 캠프이다.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교련은 ‘가족의 정-중화’ 온라인 여름(가을, 겨울) 캠프 활동을 시작하여 총 10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30개 성급 교련과 해외 370여 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개 대륙 59개국에서 온 7만 2,467명의 해외 화교청소년들을 캠프에 참가하였다. 온라인 상호작용과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많은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쳤다.³²⁾ 클라우드에서 중국어와 문자를 공부하고 언어학습 노하우를 배우며, 중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발전된 현대 중국을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 활동은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온라인 화문교육의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기도 했다.³³⁾

셋째, 교사연수와 부모연수

해외 화교 사회는 조국 중국의 지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중국 한판(漢辦), 교판(僑辦) 등 정부기관과 고등교육기관, 민간단체는 학위수여를 위한 교육, 단기연수 프로그램, 교사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해외 현지 중국어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하

31) 中國華文教育基金會, 中國華文教育基金會“停課不停學”第20期直播課結束 (2020-07-06) <http://www.chinaqw.com/hwjy/2020/07-06/262046.shtml>.

32) 中國僑聯官網: “中國僑聯舉辦2021‘親情中華·為你講故事’網上夏(春)令營開營式”, 2021年3月31日, <http://www.chinaql.org/n1/2021/0031/c41963-32066215.html>

33) 中國僑聯, 中國僑聯舉辦2021“親情中華·為你將故事”網上夏(春)令營開營式 (2021-03-31) <http://www.chinaql.org/nl/2021/0331/c419643-32066215.html>

고 있으며, 그 중 기존의 현지 교사에 대한 단기연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되었다(蘭滇, 2021: 65). ‘영국중문교육촉진회’는 발빠르게 행동하여 온라인 교육 연수반을 개설하여 전 영국화학교 교사에게 무료 교육 훈련을 제공했으며, 주영 중국대사관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 기간 동안 화문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화교의 고향을 비롯한 중국 내 화교화인 기관도 온라인 화문교육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무료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지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생을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초 윈저우대학은 윈저우시 셴옌 화교련(溫州仙岩僑聯), 셴옌교련청년연합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중국어 공부(快樂漢語, 親子共學)’을 컨셉으로 하는 클라우드 화교학교 화문반을 출시하여 많은 중국계 청소년들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 비용이 낮고 교육 현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온라인 화문교육 기관과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품이 등장했다. 게다가 중국 교민 관련 기관, 화문교육기금회 및 각 화문교육 기지에서 개최하는 수많은 무료 화문 교육 온라인 강좌가 풍부하고 다채롭게 선보이면서, 현지에서는 “중국에서 제공하는 무료 수업이 너무 많아 학부모들이 공짜에 익숙하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이다.

(3) 포스트 코로나시대 화문교육에 대한 전망

첫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코로나19가 해외 화문 교육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바로 화문교육의 대변혁이다. 우선, 전통적인 학교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화문교육의 개념은 물론 학교형태 및 교육의 구조, 화문교육 이론 및 교육 패턴, 교육과 교육 자원 건설 및 활용, 교사와 학생의 역할 전환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³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화문교육이 오프라인 주도에서 온라인 주도로 전환됐다. 그동안 온라인 화문

34) 新冠疫情對海外華文教育的影響及對應策略, 賈益民(華僑大學海外華文教育與中華文化傳播協同創新中心主任)(陸劍明等2020: 438)

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온라인 화문 교육은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 현재 직면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앞으로 다가올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교육의 뉴노멀화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발생 기간과 심지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피할 수 없는 교육방식으로 화문교육은 더 이상 온라인 교육을 묵과할 수 없다(王淑慧, 2021:76). 온라인 중국어 교육은 시공간 장벽을 넘어 학습 비용을 크게 줄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중국어 교육 방식은 장기화되고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吳應輝, 2022: 108).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외 화문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상당한 우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는 화문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중국의 기술 수출을 통해 객관적 한계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중국의 온라인 교육이 명백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많은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주로 언어 분야에 집중 공략하고 있다.³⁵⁾

셋째, 시장의 재편과 연구방향의 전환

오늘날 온라인 화문교육의 발전에 대해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온라인 중국어 교육의 다중 모드, 융합 미디어 및 기타 기술적 특성과 자원 절약의 저비용 이점은 발전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므로 온라인 중국어 교육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온라인 화문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탐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譚子恆, 鄧曉雅, 2022: 49).

‘물경천택, 적자생존(物競天擇, 適者生存)’ 조직생태학에서는 인구 내 경쟁, 공존, 선별 및 도태 과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 화문교육은 디지털화, 대중화, 다양화, 전문화, 세계화 및 전문화의 발전 추세를 보일 것이다(謝樹華, 包涵麗, 2021: 58). 즉,

35) 疫情加速全球教育線上化 中國教育愜意“出海”迎來新機遇 (202-07-02) http://edu.china.com.cn/2021-07/02/content_77601838.htm.

이제는 현실적으로 온라인 화문교육 루트와 방법을 탐색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코로나 19의 습격으로 화문교육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고 화문교육 연구도 글로벌 비상 사태의 영향으로 큰 위기를 겪었으며 효과적인 온라인 화문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화문교육 연구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글로벌 의료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화문교육은 향후 화문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며, 어떻게 화문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온라인 화문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가는 화문교육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온라인 화문교육에 대한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여 돌발사태로 인한 충격과 도전에 대처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화문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제중문교육에 대한 양적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전망이 밝다. 예를 들어, ‘중국어 국제 전파의 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발 연구’와 ‘국제중문교육 및 교육 자원 개발 보고서’의 두 가지 주제 연구에서 우리는 빅데이터 기술을 사용하여 세계 각국의 네트워크에서 중국어 교육 자원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층 정량적 연구를 수행했다. 향후 국제중문교육의 중국어 학습 의향, 학습자 수 모델링 연구, 중국어 전공 설정, 인재 양성, 수급 상황 등 많은 연구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의 지원이 필요하다(吳應輝, 2022: 11).

IV. 결론

〈준비중〉

참고문헌

- 包含麗, “新形勢下助推海外華文學校傳播中華文化路徑研究——以浙江華僑網絡學院為例”, 《華文學校與研究》, 第3期, 2022.
-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組編, 《中國語言文字事業發展報告 2017》, 北京: 商務印書館, 2017.
-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組編, 《中國語言文字事業發展報告 2021》, 北京: 商務印書館, 2021.
- 郭熙, “論漢語教學的三大分野”, 《中國語文》, 第5期, 2015.
- 黃瑞銘, 危機中謀轉機 變局中創新局——疫情下菲律賓華文教育面臨的挑戰與應對策略, 《世界華文教學》, 第9輯, 2020.
- 賈益民, 《世界華文教育年鑑》,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 賈益民, “全球疫情下華文教學的應對策略”, 《世界華文教學》, 第九輯, 2021.
- 蘭滇, “互聯網+視角下東南亞華文教師的培訓師資建設”, 《福建教育學院學報》, 第1期, 2021.
- 李園鋒, “新世紀以來華文教育研究的熱點及趨勢——基於CNKI文獻的可視化分析”, 《荷澤學院學報》, 第44卷第1期, 2022.
- 劉晗, “新時期海外華文教育融入國際中文教育探析”, 《環球》, 2022.8.
- 陸劍明等: “新冠疫情對國際中文教育影響形式研判會”觀點彙輯, 《世界漢語教學》, 第34卷第4期, 2020.
- 彭俊, 《華文教育研究》, 上海: 上海師範大學, 2004.
- 王淑慧, “新冠肺炎疫情背景下馬來西亞華文教育在線教學的問題與對策”, 《世界華文教學》, 第九輯, 2021.
- 吳應輝, “國際中文教育新動態、新領域與新方法”, 《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2卷第2期, 2022.
- 吳應輝, 樑宇, 郭晶等, “全球中文教學資源現狀與展望”, 《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第5期, 2021.
- 袁媛, “加強華文教育專業國際傳播能力建設”, 《中國社會科學報》, 第007版, 2022.
- 徐皎月、劉丙麗、胡建剛, “新挑戰·新發展——全球疫情下華文教學研討會綜述”, 《世界華文教學》, 第9輯, 2021.
- 謝樹華, 包含麗, “疫情衝擊下海外華文教育面臨的困境與發展趨勢——基於組織生

- 態學視角的分析”, 《華僑華人歷史研究》, 第2期, 2021.
- 葉哈, 陳鈞天, “一帶一路背景下印度尼西亞華文教育發展探析”, 《浙江科技學院學報》, 第33卷第4期, 2021.
- 譚子恆, 鄧曉雅, “疫情時代線上華文教育的特點、挑戰與對策”, 《兩岸終身教育》, 第2期, 2022.
- 朱敏, 郭鎮之, 華文教育 網絡傳播, 《教育傳媒研究》, 第5期, 2017.
- 卓高鴻, “大統戰’背景下高校拓展華文教育的路徑探析”, 《繼續教育研究》, 第9期, 2021.
-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 “華文線上教學的海外需求和國內供給”, 2021.
- 김주아, “말레이시아 화문교육의 메커니즘-화문학교의 역사와 현황 및 문제점, 〈중국인문과학〉, 제76집, 2020.
- 김보영, 강한, 조남현, 이창봉, “토픽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지역별, 대상별,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제42권 4호, 2021.
- 김태진,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재미한글학교의 역량과 의의”, 〈재외한인연구〉, 제56호, 2022.
- 노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어 교육-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부 유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2, 2021.
- 류재율, “한국어 가상학교(Virtual School)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26(1), 2015.
- 문혜정,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소프트파워 전략”, 〈한국아프리카학회지〉, 55, 2018.
- 손평, “중국어 국외 보급 정책에 대한 고찰과 한국어 국외 보급에의 시사점”. 〈인문사회 21〉, 2020.
- 신윤경, 이진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어 교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위한 방안 연구-국립국어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연수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4집, 2022.
- 심혜령, “온라인 세종학당 사이버 한국어 중급 교육과정의 구성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87(0), 2022.
- 전한성,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목적에 관한 일고찰”, 〈새국어교육〉, 122, 2020.